

2025년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 삶에 숨겨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들을 헤아려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이끌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그 길의 끝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어둡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주심을 가장 깊이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무거운 마음이 들 때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 변함없는 사랑으로 평생 함께하실 것을 미리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를 넘어,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할 것이라는 놀라운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어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날에도 함께하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 우리 가정에 베푸실 더 큰 은혜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5 추석 가정예배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 95:1-3)

찬송 / 301장(통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 헤맬 때 /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 / 말은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 덕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가장 귀한 선물인
가족을 허락하시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위로하며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기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23:1-6

- 1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설교 / 하나님께 감사

(설교문은 뒷면에 있습니다.)

찬송 / 310장(통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축복의 말씀 /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